

## <천마도>와 <꿈 속의 꿈>에 나타난 설화의 희곡적 변용 연구

김미도\*

### <목차>

1. 서론
2. 사랑과 권력의 충돌 - 홍원기 작, <천마도>
3. 신분의 한계와 권력 지향 - 장성희 작, <꿈속의 꿈>
4. 작가적 상상력과 인물의 재해석
5. 결론

### 국문초록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김유신과 관련된 기이한 설화들이 다수 전해진다. 이 논문에서는 김유신과 관련된 설화들이 희곡화된 대표적 작품들을 분석함으로써 설화를 창조적으로 재해석하고 재의미화하는 과정을 면밀히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인 홍원기 작 <천마도>와 장성희 작 <꿈 속의 꿈>은 김유신 관련 설화 소재 희곡들로서는 공연의 성과가 매우 뛰어났던 작품들이다.

홍원기는 <천마도>를 통해 김유신이 천관녀에게 강력히 끌렸던 이유를 가야의 유민이라는 동족의식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신라의 진골 출신으로 가야 왕족의 후예와 결혼했던 유신의 어머니는 아들의 출세를 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해 아들 주변에 맴도는 가야의 인물들을 철저히 거세하고자 했다. 어머니의 뜻을 받은 유신의 결의는 습관적으로 천관녀의 집을 향해간 말 모가지를 베어버리는 상징적인 행위로 웅변된다.

홍원기는 김유신의 욕망이 근본적으로 왕권을 향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가야국을 복원하여 가야의 왕이 되고 싶었지만, 신라의 영웅으로 입신하기를 바라는 어머니에 의해 그는 스스로 왕이 되는 대신 매체를 왕으로 만드는 킹메이커가 되어 왕도 부럽지 않은 최고 권력자의 지위를 오래도록 누린다.

장성희의 <꿈 속의 꿈>은 『삼국유사』 ‘기이편’에 등장하는 보희의 꿈을 모티브로 하여 주요 등장인물들의 엇갈리는 꿈들을 정교하게 교직한다. 보희의 꿈을 사는 문희를 비롯하여 주요 인물들의 본래 꿈은 권력에의 꿈에 그 자리를 선포 내어준다. 김유신이 천관녀를 배반하는 것은 심지어 가야국의 재건에 대한 꿈을 접는 것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유신, 춘추, 보희, 문희는 제각기 자신의 권력욕을 향해 내달리는데 그 과정에서 본래의 꿈을 저버리게 되는 주된 이유는 신분 문제이다. 가야 유민으로서의 태생적 한계를 지닌 김유신과 그의 누이들, 그리고 진골 출신으로 왕권 도전에 한계를 지닌 김춘추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 결탁한다. 그러나 그들은 말년에 한결같이 거짓 꿈을 꾸느라 진짜 꿈을 잃어버렸노라고 한탄한다.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김유신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이다. 김유신은 몰락한 가야 왕족과 결혼한 어머니가 다시 최고 권력에 다가서려는 욕망을 대신 실현하는 자이다. 김유신이 어머니의 욕망에 지배되는 인물로 그려진 데 비해 두 작품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상당히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상으로 그려졌다. <꿈 속의 꿈>에서 문희는 비록 오빠 김유신의 계략대로 움직이기는 하지만 언니 보희로부터 적극적으로 꿈을 사들이면서 왕후의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 저돌적으로 나아간다. 보희는 춘추의 첩이 되는 대신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조카 법민을 성군으로 교육하는 일에 힘쓰며 나중에는 조국을 위해 당나라로 가서 첩

자의 임무까지 수행한다. <천마도>에서 천관녀는 비록 죽었으나 무녀 아실의 몸을 빌어 김유신의 평생을 지배하는 ‘가야의 꿈’으로 상징된다.

<천마도>와 <꿈 속의 꿈>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서술된 역사적 사실과 설화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작가들의 창조적인 상상력에 의해 각기 매우 독특한 작품으로 형상화되었다. 두 작품은 주요 인물과 역사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어 서로 닮은 듯하지만 판이하게 다르다. 같은 역사서와 설화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작가의 풍부한 해석에 의해 독창적인 내러티브의 창조가 가능함을 보여준 훌륭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천마도>, <꿈 속의 꿈>, 『삼국사기』, 『삼국유사』, 설화

## 1. 서론

삼국통일기는 삼국시대 역사 중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 중 하나이다. 이 시대의 역사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특히 『삼국유사』에는 주요 인물들에 얽힌 흥미진진한 설화들이 기술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김유신(金庾信, 595~673)은 가장 걸출한 영웅으로서 그와 관련된 기이한 설화들이 다수 전해진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김유신은 무력(武力) 이간의 손자이자 서현(舒玄) 각간 김씨의 맏아들로 진평왕 17년 을묘(595)에 태어났다. 아우는 흡순(歙純)이고, 맏누이는 보희(寶姬)인데 아명은 아해(阿海)이며, 그 아래 누이동생은 문희(文姬)인데 아명은 아지(阿支)였다. 일월과 오행의 정기를 타고났으므로 그의 등에는 칠성(七星)무늬가 있었고, 또 신기한 일도 많았다. 나이 18세가 되던 임신(612)에 검술을 닦아 국선(國仙)이 되었다.)

1) 일연, 『삼국유사』, 이가원·허경진 옮김, 한길사, 2006, 117-118쪽 참조.

김유신의 탄생과 관련해서는 ‘추남’ 설화가 전해진다. 김유신은 전생에 고구려의 점치는 사람 추남(楸南)이었다고 한다. 국경에 물이 역류해서 추남에게 점치게 했더니 왕비가 음양의 도를 역행한 때문이라고 했다. 왕비가 크게 노하여 다른 일을 가지고 시험하도록 했는데 쥐 한 마리를 함 속에 감추고 무슨 물건이나 물으니 추남이 “틀림없이 쥐인 데 여덟 마리”라고 아뢰었다. 그가 틀렸다고 하여 목을 베려 하자 그는 “내가 죽은 뒤 대장이 되어 반드시 고구려를 멸망시키겠다”고 했다. 죽이고 나서 쥐의 배를 갈라보니 새끼가 일곱 마리 들어있었고, 그날 밤 대왕의 꿈에 추남이 신라 서현공 부인의 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sup>2)</sup>

『삼국사기』에 김유신의 태몽 또한 매우 신묘하게 전해진다. “서현이 경진일 밤에 꿈을 꾸었는데, 형혹성(熒惑星)과 진성(鎭星) 두 별이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이었다. 만명 역시 신축일 밤 꿈 속에서 금빛 갑옷을 입은 동자가 구름을 타고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이윽고 임신을 하여 20개월 만에 유신을 낳았”<sup>3)</sup>다. 유신의 태를 묻은 산을 태령산(胎靈山)이라 하며, 유신이 15세에 화랑이 되자 당시 사람들이 기꺼이 복종했다고 한다.<sup>4)</sup>

이처럼 김유신은 그 탄생설화로부터 상당히 신격화되어 있으며 일찍이 국선, 즉 화랑의 우두머리가 되어 권력의 중심으로 나아갈 조짐을 보였다. 『삼국유사』에는 김유신 본인에 관련된 신비로운 설화들뿐 아니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도 재미난 설화들이 많이 전해지며 서로서로 연관을 맺고 있기도 하다. 김유신과 관련된 신라의 왕들만 열거해 보더라도 선덕여왕(632~647 재위), 진덕여왕(647~654 재위), 태종무열왕(654~661 재위), 문무왕(661~681 재위)으로 이어지며 걸출했던 왕들이 또 제각기 다채로운 설화들을 품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김유신과 관련된 설화들이 희곡화된 대표적 작품들을

2) 위의 책, 119-120쪽 참조.

3) 김부식, 『삼국사기 Ⅱ』, 이강래 옮김, 한길사, 2016, 750쪽.

4) 위의 책, 751쪽.

분석함으로써 설화를 창조적으로 재해석하고 재의미화하는 과정을 면밀히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 작품은 홍원기 작 <천마도>와 장성희 작 <꿈 속의 꿈>이다. 두 작품에는 김유신과 얽힌 ‘천관녀 설화’를 비롯하여 태종무열왕 김춘추와 김유신의 누이들인 보희와 문희 사이에 얽힌 설화들이 차용되고 있다. 홍원기와 장성희는 설화의 차용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들을 상세히 검토하고 사실(史實)의 토대 위에서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작가가 의도하는 새로운 의미망들을 생산해내고 있다. 특히 기존에 김유신을 영웅적인 인물로 묘사하던 관성적인 내러티브에서 벗어나 김유신의 인간적인 고뇌를 부각시키거나 김유신의 주변 인물들로 머물던 여성들을 중심인물로 내세운다.

<천마도>와 <꿈 속의 꿈>은 김유신 관련 설화 소재 희곡들로서는 공연의 성과가 매우 뛰어났던 작품들이다. 홍원기 작 <천마도>는 1995년 삼성문예상 희곡부문 수상작으로 1998년 1월 30일부터 2월 11일까지 문예회관 소극장(현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되었다. 장성희 작 <꿈 속의 꿈>은 2008년 서울연극제 공식참가작으로 공연(신동인 연출, 4.30~5.2,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되어 서울연극제 대상, 희곡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꿈 속의 꿈>이 삼국통일 이전부터를 역사적 배경으로 담고 있고, <천마도>가 삼국통일 이후를 주 배경으로 하고 있어 시대적으로는 <꿈 속의 꿈>이 앞서지만, 작품의 발표 시기를 고려하여 <천마도>를 앞서 분석하고자 한다. <꿈 속의 꿈>은 장성희의 희곡집 『꿈 속의 꿈』에 실린 판본을 텍스트로 하며, <천마도>는 작가가 직접 제공한 1998년 공연 대본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sup>5)</sup>

5) 수상작 원본은 홍원기, <천마도>, 『삼성문예상 희곡문학상 수상작가선』, 문학사상사, 1997.

## 2. 사랑과 권력의 충돌 - 홍원기 작, <천마도>

홍원기 작 <천마도>에서 제목으로 쓰인 ‘천마도’는 국보 제 207호로 1973년 경주시 천마총에서 발견된 장니 천마도에서 가져온 것이다. ‘장니’란 말 탄 사람의 옷에 진흙이 튀지 않도록 말의 배 양쪽에 늘어뜨린 네모난 판을 일컫는다. 장니에 그려진 그림에 관해서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신라의 천마도는 날개가 있고 기본적으로 하늘을 날고 있는 자세로 볼 때는 비마(飛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 신화에서 말이 통치자의 등장을 알리는 신마(神馬)로 등장하는 천마신앙과 관련하여 천마로 보는 의견이 있다.”<sup>6)</sup> 박혁거세의 탄생신화에서 박혁거세는 흰 말 한 마리가 꿰어앉아 절하고 있는 곳에서 발견된 붉은 알로부터 나왔다.<sup>7)</sup> 천마도에서 ‘천마’는 곧 강력한 왕권, 강력한 통치자, 신과 같은 권력 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홍원기는 1998년 초연 프로그램에서 이 작품의 의도가 ‘통일’에 있음을 내비쳤다. “지금 저희는 둘로 갈라져 진물나는 썸박질을 그만 끝내는 통일을 해야 합니다. 허나 그 통일로 인하여 잃은 것이 많아서 안되지요. 그래 장군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부디 오셔서 님들이 사셨던 통일의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님들이 타셨어야 할 천마(하늘말)는 아직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sup>8)</sup>

6) 경주 천마총 장니 천마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www.encykorea.aks.ac.kr/>) (검색일: 2019.05.30)

7) “높은 곳에 올라 남쪽을 바라보자 양산 아래 나정(蘿井) 옆에 이상한 기운이 마치 번개빛처럼 땅에 드리워지고, 흰 말 한 마리가 꿰어앉아 절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곳을 찾아가 보았더니 붉은 알 한 개가 있었는데, 말이 사람을 보고는 길게 울면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 알을 쪼갰더니 생김새가 단정하고 아름다운 어린 사내아이가 있었다. 놀라고 이상스럽게 여기며 동천(東泉)에 목욕시켰더니 몸에서 광채가 났다. 새와 짐승들이 따라서 춤추고, 천지가 진동했으며, 해와 달이 청명해졌다. 그래서 혁거세왕이라 이름하고, 직위의 칭호를 거슬한(居瑟邯)이라 했다.” 일연, 앞의 책, 89쪽.

8) 홍원기 작·연출, <김유신 이야기 천마도>, 극단 목화, 1998.01.30.-02.11, 문예회관 소극장, 프로그램북.

이 작품의 배경 설화는 김유신과 천관녀(天官女)에 얽힌 것으로 김유신이 천관녀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애마(愛馬)의 목을 베어버렸다는 내용이다. 김유신은 천마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애마를 처단하는 비정함을 보인다. 천관녀는 신라 진평왕 때의 기녀로 알려져 있으며 소년 시절의 김유신과 서로 좋아하였다.

그러나 이를 안 김유신의 어머니가 “나는 이미 늙어서 밤낮으로 오직 네가 성장하여 가문을 빛내기만 바라고 있는데 너는 기생집에나 드나 들고 있느냐”하고 울면서 책망하자, 김유신은 크게 뉘우쳐 다시는 기방에 출입하지 않겠다고 어머니에게 서약하였다. 하루는 김유신이 술에 취하여 돌아오는데 말이 옛길을 따라 천관의 집으로 갔다. 천관은 한편 원망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반가이 맞이하였다. 그러나 천관을 보고 놀라 술이 깬 김유신은 타고 온 말을 베고 안장도 버린 채 돌아가 버렸다. 이를 본 천관이 원망하는 노래 한 곡을 지어 세상에 전하였다고 한다. 뒤에 김유신이 그녀의 옛 집터에 절을 짓고 그의 이름을 따서 천관사(天官寺)라고 하였다.<sup>9)</sup>

<천마도>의 첫 장면은 ‘늙은 유신’의 꿈속에서 ‘젊은 유신’이 유신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천관녀를 베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서 문무왕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혁거세와 역대 왕들의 혼을 모시는 사당에서 고구려 정벌을 고하는 제사를 올린다. 여기에 나라무당인 ‘아실’<sup>10)</sup>이 등장한다. 아실은 유신의 꿈속에 나오는 죽은 천관녀 역을 하도록 1인 2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천관녀는 아실을 통해 빙의하곤 한다.

유신의 꿈을 통해 젊은 유신이 천관녀에게 강력히 끌렸던 이유는 천관녀가 가야의 유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라의 진골 출신인 유신의 어머니로서는 유신에게서 가야 유민의 꼬리표를 떼어내야 하는 절체절

9)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천관녀’에 관한 설화는 『삼국유사』,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에 전해온다.

10) 아실은 신라의 시조 혁거세 신화에 나오는 백마를 몸주로 삼기는 무녀로서, 그 모델이 화랑의 전신이라는 ‘源花’이다. 작가 주.

명의 숙제를 안고 있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김유신의 어머니 만명부인은 가야왕족의 후예인 김서현(金舒女)을 만나 중매도 없이 야합하였다고 전해진다.<sup>11)</sup> 만명부인은 김서현과 매우 자유분방한 연애로 결합하였 으면서도 아들 유신의 여자관계에 대해서는 대단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다. 자신은 가야 왕족의 후예와 결혼하여 유신을 낳았으나 유신의 출세를 위해서는 가야와 연결된 끈을 결연히 끊어버리려 했다. 그러나 그 인연의 끈은 유신의 아들 원술에게로 대물림된다. 설화 속에서 김유신이 천관녀의 옛 집터에 지었다는 천관사는 <천마도>에서 아실이 거하는 서낭당이고, 유신의 아들 원술이 아실과 사랑에 빠져 있다.

삼국통일이 이루어졌지만 문무왕대의 신라는 당나라의 위세에 짓눌려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668년과 671년 사이에는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심각한 외교 문제들이 일어났었다. 특히 670년에 당나라가 그동안 잡아 두었던 김흠순을 돌려보내고 대신 김양도를 가둔 일이 그러하다. 신라왕이 멋대로 백제 땅과 유민을 차지했다 하여 당나라 황제가 문책한 것이 었다.<sup>12)</sup> <천마도>의 장면 14 ‘궁’에서는 심지어 당나라의 사신이 “법민 아우 임해군공 김인문<sup>13)</sup> 신라왕으로 봉!”이라는 당나라 황제의 일방적

11) “처음에 서현이 길에서 갈문왕 입종(立宗)의 아들인 숙흥종(肅訖宗)의 딸 만명(萬明)을 보고 마음으로 기뻐하여 눈짓으로 피어서 중매를 기다리지도 않고 야합하였다. 서현이 만노군(萬弩郡) 태수가 되어 장차 함께 떠나려 하자, 숙흥종은 비로소 딸이 서현과 야합한 것을 알고 노하여 딸을 별채에 가두고 사람을 시켜 지키게 하였다. 그러나 홀연히 별채의 문에 벼락이 쳐서 지키는 이들이 놀라 흩어지자, 만명은 뚫린 구멍으로 빠져나와 마침내 서현과 더불어 만노군으로 달아났다.” 김부식, 앞의 책, 750쪽.

12) 고운기,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유사』, 현암사, 2013, 181쪽.

13) 김인문(金仁問)은 자가 인수(仁壽)이고, 태종대왕의 둘째 아들이다.(중략) 영휘(永徽) 2년(651), 인문의 나이 23세 때 왕명을 받아 당에 들어가 숙위(宿衛)하였다. 당 고종은 바다를 건너와 입조하는 충성이 가상하다 하여 특별히 좌령군위장군(左領軍衛將軍)을 수여하고, 4년에는 조칙을 내려 본국에 돌아가 부모를 뵈게 하였다.(중략) 인문은 다시 당으로 들어갔다. 건봉(乾封) 원년(666)에는 황제를 모시고 태산(泰山)에 올라 봉선(封禪)의 의식에 참여해 우효위대장군(右驍衛大將軍)의 직위와 식읍 4백 호를 더 수여받았다. 상원(上元) 원년(674)에 문무왕이 고구려의 반란 집단을 받아들이고 게다가 백제의 옛 땅을 차지하자, 당 황제가 크게 노하여 유인궤(劉仁軌)를 계림도대총관(雞林道大總管)으로 삼아 군사를 발동해 와서 치게 하고, 조서를 내려 왕의 관작

결정을 통고하기도 한다. 이는 실제로 674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문무왕이 당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 사죄하니 황제가 명을 거두었다.

<천마도>에서 ‘김진주’는 친당파의 수장으로 등장하여 노장 김유신과 대립한다. 늙고 병든 김유신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아버의 칼’을 원술에게 내리며 전장에 나갈 것을 독려한다. 원술에 관한 역사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유신의 아들 원술은 비장(裨將)으로서 역시 싸우다 죽고자 했으나, 그 막료 담릉(淡凌)이 저지하면서 말하기를 “대장부는 죽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자리 정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는 것입니다. 만약 죽고서도 이루는 것이 없다면 차라리 살아서 뒷날의 공적을 도모하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원술은 이에 대답하기를 “남아는 구차스럽게 살지 않는 것이거늘 장차 무슨 낮으로 내 아버지를 뵈울 것인가”하고, 문득 말을 채찍질해 달려나갔으나 담릉이 고삐를 놓아주지 않아 마침내 죽지 못하고 상장군을 따라 무이령(蕪蕪嶺)으로 탈출하였다.(중략)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돌아와 어머니를 뵈오려 하자, 어머니가 이르기를 “여인에게세는 세가지의 좇아야 할 의리가 있거니와, 지금 이미 홀로 되었으니 마땅히 아들을 따라야 하겠지만, 원술 같은 늙은 이미 돌아가신 남편에게서 아들 취급을 받지 못했거늘 내가 어찌 그 어미가 될 수 있겠는가”하고 끝내 만나주지 않았다.<sup>14)</sup>

---

을 박탈하였다. 이때 인문은 우효위원외대장군임해군공(右驍衛員外大將軍臨海郡公)으로서 당의 수도에 있었는데 황제가 그를 왕으로 삼아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의 형을 대신하게 하고, 아울러 계림주대도독개부의동삼사(鷄林州大都督開府儀同三司)로 책봉하였다. 인문은 간곡하게 사양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드디어 길을 떠났다. 이때 마침 왕이 사신을 들여보내 조공하고 또 사죄하니, 황제가 용서하고 왕의 관직을 회복시켰으므로, 인문은 중도에서 돌아와 역시 예전 직함을 회복하였다.(중략) 연재(延載) 원년(694) 4월 29일에 병에 걸려 당나라 수도에서 죽으니, 향년 66세였다.(중략) 인문은 일곱 번이나 당에 들어갔으며, 당나라 궁정에서 숙위로 있었던 나날을 계산하면 무릇 22년이었다. 김부식, 앞의 책, 789-793쪽.

14) 위의 책, 778-780쪽.

그 후, 원술은 675년에 당나라 군사가 매소천성(買蘇川城)을 공격하자 전장에 나가 공을 세웠으나 부모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을 분하고 한스럽게 여겨 벼슬하지 않고 일생을 마쳤다 한다.<sup>15)</sup>

<천마도>에서 원술이 죽음을 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실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죽음을 망설이게 하는 데는 원술에 대한 유신의 장남 삼광(三光)의 질투가 개입된다. 삼광은 자신이 장남인데도 늘 부친의 애정이 원술에게 쏠리는 것을 못마땅해한다. 유신이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칼’을 원술에게 내어주는 것을 보고 원술을 무너뜨릴 계략을 꾸민다.

삼광: 죽어서 돌아오라 하시고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칼을 내어 주신다. 알 수 없는 아버님의 계산법이라. 이기고 죽어 오면 화랑의 귀감(龜鑑)이 되어 이름이나 남길 테고, 이기고 살아오면 서라벌의 영웅이 되고 거기다 아버님의 권세를 승계 받는다. 곤란하지 그러면. 허나 절대 이기지 못할 싸움이라 하엿겠다. 패하고 죽어서 돌아온다. 그러면 그 뻔한 죽음으로 대당전면전을 명하시겠다. 늡으면 죽지 좀. 칼이여 나에게 오라. 휘둘러보자.(잠시) 패하고 살아 돌아온다. 그거 괜찮군!

하여, 삼광은 원술을 받드는 화랑 담릉에게 ‘거울’ 하나를 건네주며 원술이 살아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아실의 정표라고 말한다. 원술은 전장에서 장렬히 전사하기를 원하지만, 담릉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거울을 원술에게 건네주며 살아 돌아가라 간청하고 대신 화살을 맞는다. 당나라와의 전투에서 패배한 결과, 고구려 영토 전부를 포기하자는 김진주의 주장과 대당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김유신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김유신은 원술이 “왕명을 욕되게 했고 가훈을 저버렸으니 죽이겠다”고 한다.

15) 위의 책, 780쪽 참조

김유신은 천관녀를 베어 죽이던 일을 회상하며 괴로워한다.

늙은 유신: 그만! 그만(흐느끼고 쥐어짜며 젊은 시절의 자기를 베어낸 다) 정녕 네가 날 용서치 않는구나. 베어 내고 베어 낼수록, 네 얼굴 그림도록 가어웁고, 그 노랫소리 갈수록 내 가슴에 박히는구나. 내 널 베어낸 칼을 들어 삼한일통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신라는! 난 (사이) 이놈을 당장 베지 않고, 죽어서 어떻게 천관 너의 혼(魂)을 대 할 수 있으랴. 원술이를 찾아와!

원술은 김진주의 목을 베어 부친 앞에 바친 후 스스로 죽겠다 하지만 결국 유신은 죽지 장군을 보내 만류하도록 한다.

유신: 허나 이제부턴 내 아들이 아니다.(사이)

어머니 제가 하였습니다. 춘추가 임금이 된 것도 백제를 멸한 것도 법민이가 대를 이어 왕이 된 것도, 고구려를 멸한 것도, 이 아들이 하였습니다. 허나 지금 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왜 저를 신라의 아들로 키우셨습니까. 차라리 이 칼 높이 들어 신라 왕실을 뒤엎고, 아버지, 아버님 할아버님의 왕국 가야를 되찾아 세우는 왕이 되고도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신라의 딸이셨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나라가 저 패놈들의 그늘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들의 이 칼은 그저 늙은 몸 지탱하는 지팡막대일 뿐입니다. 어머니!

결국 작가는 김유신의 본원적인 욕망이 왕권을 향하고 있었다고 해석했다. 가야 왕국을 되살리고 가야의 왕이 되고 싶었으나 신라 진골 출신인 어머니로 인해 김유신은 신라의 충신이 되는 길을 택했고, 가야의 재건보다는 더 큰 꿈인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루었다. 그러나 극중에서 계속 김유신의 주변을 맴도는 코러스 ‘음병(陰兵)들’은 그런 김유신을 ‘졸장군 졸장부 썸생이 썸쟁이 쪼다리 김유신!’이라 조롱한다. 국가를 위해 개인의 삶은 희생되었고, 자신을 지극히 사랑했던 한 여인은 무참히 베어버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천마도>의 마지막 15장 ‘가는 길’에서

음병들은 김유신에게 통일을 위한 새로운 말, 즉 ‘천마’가 필요하다고 노래한다.

음병들: 백마야 백마야  
발굽을 갈아라, 갈 길이 멀다  
머리는 어디 두고 꼬리만 흔드니  
새 머리 줄게 새 주인 태워라  
갈기를 세우고 숨 몰아 쉬어라  
구름 차고 오르는 天馬가 되어라  
갈기를 세우고 저 한울 날아라

그리고 유신은 어머니와 천관이 손잡고 있는 곳으로 사라진다. 이는 삼성문예상 응모 당시 구상했던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원작에서는 “말 울음 소리 진동하며 하늘이 열린다./ 천마에 오른 유신과 천관녀, 새벽빛 한울 속으로 치솟아 오른다. 음병들, 서슬 푸른 몸짓으로 땅을 박 찬다”고 되어 있다. 원작에서는 유신과 천관녀가 천마를 타고 함께 비상하는 이미지를 의도했다면 실제 공연에서는 천마를 직접 등장시키지 않았다. 무대에서 표현하기 어려웠던 때문일 수도 있고, 김유신의 인간적 고뇌를 더 부각시키고자 한 작가의 선택이라 볼 수 있다.

### 3. 신분의 한계와 권력 지향 - 장성희 작, <꿈 속의 꿈>

장성희 작, <꿈 속의 꿈>의 주요 원천이 된 것은 『삼국유사』의 『기이상(紀異上)』편 ‘태공 춘추공’ 부분에 나오는 김유신의 누이들과 김춘추에 얽힌 설화이다.

처음 문희의 언니 보희가 서악에 올라 오줌을 누었더니 온 서울에 오줌이 가득해지는 꿈을 꾸었다. 아침에 동생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

니 문희가 그 말을 듣고 말했다. “내가 그 꿈을 사겠수.” 언니가 말했다. “무엇을 주련?” “비단치마면 되겠지?” 언니가 좋다고 했다. 동생이 옷깃을 벌리고 그 꿈을 받았다. 언니가 말했다. “어젯밤 꿈을 네게 넘겨주마.” 동생이 비단치마로 값을 치렀다. 그런지 열흘 뒤에 유신이 춘추공과 함께 정월 오기일(午忌日)에 자기 집 앞에서 축국(蹴鞠)을 하다가 일부러 춘추의 옷자락을 밟아 옷고름이 떨어지게 하고는 말했다. “우리 집에 들어가 꿰맬시다.” 춘추공이 그 말대로 했다. 유신이 아해에게 바느질을 시키자 아해<sup>16)</sup>가 “어찌 하찮은 일을 가지고 가며이 귀공자를 가까이 하겠어요?”라면서 이내 사양했다. 그래서 아지<sup>17)</sup>에게 시켰더니 공이 유신의 뜻을 알고 드디어 그를 사랑했다.<sup>18)</sup>

장성희는 초연 프로그램북에서 “이 연극은 역사 속에 기록되지 않은 여인들의 삶과 이야기를 다룬다. 삼국통일 과정에서 김유신이나 김춘추의 이야기는 큰 몫으로 다루어왔으나 두 자매의 이야기는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매몽설화에는 무엇보다도 삶의 아이러니가 감춰져 있다. 두 자매 모두 행복을 꿈꾸지만 행복해지기 위해 꿈을 사고판 ‘매몽’의 행위를 통해 외려 삶은 두 자매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세간의 시각으로는 김춘추의 아내가 된 문희가 삶의 승자가 된 듯 여겨지지만, 과연 그랬을까?”<sup>19)</sup>라며 의문을 표했다.

장성희는 이 설화에 나타난 보희의 꿈을 모티브로 하여 주요 인물들의 욕망을 모두 ‘꿈’의 엇갈림으로 형상화한다. <꿈 속의 꿈> 시작 부분에서 화랑 ‘미곤’이 ‘쪽빛 치마 한 갑’을 문희에게 바친다. 미곤은 그 오묘한 빛깔을 얻기까지 문희에 대한 간절한 사모의 마음이 작용했음을 암시한다. 즉, 미곤의 꿈은 ‘문희’를 향하고 있었다.

---

16) 보희, 필자 주.

17) 문희, 필자 주.

18) 일연, 앞의 책, 121-122쪽.

19) 장성희 작·신동인 연출, <꿈 속의 꿈>, 2008.04.30.-05.02,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프로그램북.

작가는 애초에 춘추와 보희가 서로 사모하는 사이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진골 출신으로 신분의 한계를 가진 춘추는 자신의 야망을 달성코자 신분이 높은 ‘보량공주’와 혼인한 상태이다. 춘추와 보희의 꿈은 본시 서로를 향해 있었으나 춘추의 꿈이 왕권을 향하면서 보희의 꿈을 배반한다.

한편, 김유신은 자신의 꿈을 위해 누이들을 이용하려 한다. 처음에는 보희를 야망의 사다리로 삼으려 했으나 김춘추가 다른 여인을 선택한 후 보희가 첩으로 살기는 싫다고 하자 다시 문희를 새로운 사다리로 삼는다. 김유신은 “벼슬보다는 신분, 관등보다는 품계가 앞서는 이 나라”에서 “나 자신이 신라가 되리라”<sup>20)</sup>고 선언한다. 즉 김유신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누이들을 어떻게든 김춘추와 결합시키려 한다.

김유신은 이미 자신의 욕망을 위해 첫사랑 여인을 배반한 바 있으니 바로 ‘천관녀’이다. 자꾸만 천관녀의 집을 향해 가는 말 머리를 베어버리는 것으로 김유신은 천관녀에 대한 사랑을 배어버렸다. 그가 거세한 것은 천관녀에 대한 마음뿐 아니라 조국 가야를 되찾는 꿈까지 포함한 것이다. 김유신은 “가야의 얼굴은 잊어라! 니가 들춘 내 본색은 지위라”면서 “나는 이제 금수의 탈을 쓰리라!”고 외친다. 그리고 허공중의 가면을 내려 쓰자 딱딱한 표정이 완성된다.(24쪽) 김유신이 배반한 꿈, ‘천관녀’는 곧 가야국의 재건에 대한 포기이기도 하다.

문희가 보희로부터 산 꿈과 함께 이 작품에는 김춘추의 꿈이 도입된다.

춘추 : (함께 어울려 추던 화백4에게) 꿈을 꾸었소이다. 이상한 꿈이죠.  
사모를 벗고, 갓을 쓰고, 열 두 줄 거문고를 안고서 우물로 들어가버  
리다.

화백4 : 우물에 들었다?

20) 장성희, 『꿈 속의 꿈』, 『꿈 속의 꿈』, 애플리움, 2009, 22-23쪽. 이후 작품 속 대사는 본문 중에 쪽수를 괄호로 처리함.

춘추 : 그렇소이다.

화백4 : 옥에 간힐 징조요! 자중하시오. 사모를 벗은 것은 실직할 징조!  
거문고를 안은 것은 칼을 쓸 징조!(27쪽)

춘추의 꿈을 흉조라 해석하던 화백들은 춘추가 권력의 정점을 향해가  
자 그 해몽을 달리한다.

춘추 : (떠보듯) 내가 꿈을 꿔소. 꿈 속에서 사모를 벗고, 갓을 쓰고, 열  
두 줄 거문고를 안고, 우물로 들어가더이다. 무슨 꿈이겠소?

화백4 : 상서로운 꿈이외다.

화백1 : 사모를 벗은 것은

화백2 : 더 높은 사람이 없는 것이요!

화백3 : 갓을 쓴 것은

화백1 : 면류관을 쓰실 것을 예언한 것이옵고!

화백4 : 열두 줄 거문고를 안은 것은

화백3 : 십이 대 손까지 대를 전할 징조!

화백5 : 우물로 들어간 것은

모두 : 대궐로 들어가실 징조! (35~36쪽)

여기서 결국 꿈이란 해몽하기 나름이 된다. 김춘추의 기이한 꿈은 권  
력을 추종하는 자들에 의해 길몽으로 재해석되어 왕으로 추대되기에 이  
른다. 진덕왕 사후 신라 왕위계승자로 성골남자가 다하자 진골귀족 중  
에서 왕위계승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김춘추는 풍부한 정치적 관록과  
비범한 외교적 재능을 갖춘 데다 정치적 동지이며 인척 관계로 맺어진  
군권을 가진 김유신의 지지까지 얻고 있었다.<sup>21)</sup>

김춘추가 왕권을 향해가는 길에서 만난 운명적 동반자는 바로 김유신  
이었다. 그는 김유신이 자신의 누이 중 하나와 부부의 연을 맺게 하려는  
계책을 꾸미고 있음을 눈치채고 기꺼이 넘어가준다. “김유신은 가야과의

21) 배근홍, 『삼국유사』에 보이는 나당관계 내용의 새로운 검토, 일연학연구원 편, 『일  
연과 삼국유사』, 신서원, 2007, 271쪽 참조.

우두머리요 어미 만명은 진골정통, 대원신통!”(30쪽)이기 때문이다. 김유신과 처남 매제 사이로 엮이는 것은 곧 가야의 세력을 통째로 얻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김춘추는 원래 사모하던 보희가 아니라 또 다른 권력욕의 화신 문희를 취한다. 춘추와 유신과 문희가 각각 꾸던 꿈은 권력욕이라는 공통분모에 의해 하나의 꿈으로 합일되기에 이른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문희는 혼전에 춘추의 아이를 갖게 되고, 유신은 일부러 이 소문을 퍼뜨리며 누이를 장작더미에서 불태워 죽이려 하였다. 이 소문을 듣게 된 선덕여왕이 춘추로 하여금 문희를 구하게 하고, 그들은 몇몇이 혼례를 치른다. 여기서 “김문희는 꿈으로 얻은 황후 자리에 자신의 고통과 희생이라는 제의를 거쳐 황후가 되는 신화 전략을 보인다.” “김문희와 김춘추의 결합은 아들 문무왕으로 이어지면서 가야의 시조에게 제사를 지내게 된다. 즉 그들의 결합이 문화 간 융합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22)</sup> 김유신의 명민한 계산 속에서 “왕이 될 만한 이로는 춘추밖에 없었고, 문희와의 결혼이 이뤄졌을 때라야만 신라와 가야는 진정한 한 나라가 된다는 생각이 그 밑에 깔려 있었다.”<sup>23)</sup>

춘추와 문희가 한 몸이 되고 세월이 흘러 춘추는 왕이 되었고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루었다. 그러나 당나라의 힘을 빌려 이룬 통일은 늘 위태롭기만 하고 그는 더욱더 당나라에 의존하려 한다. 춘추가 아들 법민을 당나라에 볼모로 보내려 하자 이미 많은 아들을 잃은 문희는 법민 대신 보희를 당나라에 보내고자 한다. 문희는 보희를 찾아가 법민 대신 당나라로 가달라고 애원하면서 보희로부터 꿈을 샀던 일을 원망한다. 보희 역시 “내 꿈을 알지 못한 죄 때문에 흑승지옥에 살았다”며 자신의 꿈을 돌려달라 한다. 보희는 “조롱에 갇힌 새”처럼 살아온 삶을 후회하며 넓은 당나라로 가겠다 하지만 춘추는 그제야 보희가 자신의 꿈이었음을

22) 표정옥, 『삼국유사와 대화적 상상력』, 세종출판사, 2013, 183쪽.

23) 고운기, 앞의 책, 170쪽.

깨닫고 당나라행을 만류한다.

당나라로 떠나는 보희에게 유신은 첩자의 임무를 부여하고, 문희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독약을 건네준다. 그리고 전장에 나가 주검으로 돌아온 미곤의 관이 자신 앞에서 움직이지 않자 문희는 비로소 미곤이 자신의 본래 꿈이었음을 깨닫는다. 보희는 신라와 내통하다 들켜 결국 독약을 마시고, 문희는 한지를 물에 적서 얼굴 위에 몇 겹이나 덮어쓰며 스스로를 ‘도모지’ 형벌에 처한다. 춘추는 죽은 보희를 자신의 빈첩 자리에 올리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탄식한다.

문희: 언니? 어서 오세요. 덕분에 단꿈을 꾸었습니다... 차마 깨기 두려운 꿈이었지요. 지극 복락했습니다, 큰 영화를 누렸어요.(중략) 아들 셋은 돌아올 날 기억 없이 먼 나라로 유람을 떠났지요. 한평생 등 돌리고 누운 지아비 덕분에 한 겨울에도 잠자리가 시린 줄 몰랐어요. 오라버니가 꼭두놀음 벌이면 한판 어울려 놀기도 했지요. 탈을 쓰고 헛 웃고 거짓 울었습니다. 그래서 아파도 아픈 줄을 몰랐습니다. 정녕 단꿈을 꿴습니다.

보희, 비단 치마를 벗어 문희에게 건넨다.

문희, 비단 치마를 받는다. 치마, 빛 바래고 누더기가 되었다.(54쪽)

<꿈 속의 꿈>에서 춘추, 유신, 보희, 문희가 제각기 자신의 욕망을 향해 질주한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꿈이라고 믿는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지만 먼 훗날 그것이 헛된 꿈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탄한다. 그들은 거짓 꿈을 꾸는 동안 진짜 꿈을 잃어버리고 배반했다. 겉으로 최고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렸을망정 그들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다.

이들이 원래의 꿈을 저버리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신분 문제이다. 김유신과 그 누이들이 지닌 가야 유민으로서의 태생적 한계, 그리고 김춘추가 진골이기에 지닌 신분적 한계는 최고 권력으로 나아가는 결정적 걸림돌이었다. 보희는 “진골, 성골! 뼈 놀음이나 하는 이깃 오골

계의 나라!”를 저주하며 김춘추의 빈첩으로 살기보다는 ‘서로를 공경하는 큰 사랑’을 원하지만 꿈을 이루지 못한다. 춘추와 유신과 문희는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최고 권력에 도달했으나 그들은 모두 신분을 초월하는 사랑은 이루지 못한 셈이다.

장성희는 이 작품에서 ‘통일’이라는 정치적 선택 안에서 희생되는 여성들의 삶을 부각시키고 있다. 외세를 끌어들여 이룬 통일은 더욱 외세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법민이 당나라에 볼모로 가야 할 지경에 이르자 문희는 아들 법민 대신 보희를 당나라로 보낸다. 보희는 문희에게 꿈을 팔아 평생 어지러운 삶을 살아왔는데도 다시 조카를 위해 희생양이 된다. 유신은 남자 조카를 구하기 위해 냉정하게 보희를 희생시키고, 보희를 사랑한 춘추도 아들이 우선이어서 보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도모지 형벌에 처하는 문희 역시 통일을 향한 남성들의 정치적 놀음에 놀아난 희생양이다. 문희는 유신의 계략에 의해 춘추에게 팔려간 셈이고, 통일의 위업을 달성하는 가운데 많은 아들을 잃었으며 결국 보희마저 잃게 된다. 장성희는 통일이라는 명분마저 결국 유신과 춘추가 최고 권력으로 향해가는 정치적 ‘수단’이었음을 암시적으로 내비친다. 통일이라는 압도적인 이데올로기가 신라를 지배하면서 김춘추의 왕위 계승, 김춘추와 김유신의 결탁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된다. 그 과정에서 김춘추와 김유신은 자신들이 사랑했던 여성들을 비정하게 배반하거나 심지어 희생시키며 오로지 최고 권력의 정점을 향해 내달린다.

#### 4. 작가적 상상력과 인물의 재해석

홍원기의 <천마도>와 장성희의 <꿈 속의 꿈>은 『삼국유사』의 제 2권 ‘기이(紀異)’에서 주로 ‘김유신’, ‘태종 춘추공’, ‘문무왕 김법민’ 부분을

토대로 하고 있다. 『삼국사기』에서는 주로 권 제 41의 ‘김유신’ 부분을 참조하고 있다. 두 역사서에서 <꿈 속의 꿈>의 바탕인 된 김유신, 김춘추, 문희, 보희를 둘러싼 권력에의 지향은 비교적 상세히 서술되어있는데 비해 ‘천관녀’에 대한 언급은 지극히 단편적이다. 그만큼 <천마도>는 작가의 허구적 상상력이 더 폭넓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은 작가들이 김유신을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불세출의 영웅으로만 그리지 않고 매우 교활한 남성, 또는 소심하고 졸렬한 남성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천마도>에서 김유신이 말 머리를 베어버리고 ‘천관녀’와 이별하는 것은 단순히 한 여인과의 관계 청산이 아니라 ‘가야국’의 재건에 대한 미련을 접어버리는 것, 대신 삼국통일의 원대한 꿈을 꾸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작가는 원래 김유신이 천관녀에게 강력히 끌렸던 이유를 가야의 유민이라는 동족의식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신라의 진골 출신으로 가야 왕족의 후예와 결혼했던 유신의 어머니는 아들의 출세를 위해 아들 주변에 맴도는 가야의 인물들을 철저히 거세하고자 했다. 어머니의 뜻을 받은 유신의 결의는 습관적으로 천관녀의 집을 향해간 말 모가지를 베어버리는 상징적인 행위로 웅변된다.

김유신은 결국 무의식에서 천관녀를 버리고 어머니를 선택한 것이다. 김유신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어머니의 욕망을 대신 실현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천마도>에서 김유신은 자신을 아버지 나라의 아들로 키우지 않고 어머니 나라의 아들로 키운 만명부인을 원망하고 있다. 김유신이 가야 재건의 꿈을 접는 순간 신분상의 제약으로 인해 그 스스로는 왕이 될 수 없는 입장이 된다. 그가 왕이 되지 않고도 최고 권력을 거머쥐는 길은 ‘킹 메이커’가 되는 것이었다. 하여, 그는 왕위 서열 일순위로 부상하는 김춘추와 누이 중 하나를 결합시킬 계획을 꾸미고, 김춘추가 왕위에 오르자 신라 권력 서열 1위가 되며 조카인 법민이 왕위를 계승함으로써 2대에 걸쳐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한다. “태종무열왕 2년 왕은 3월에 세자 법민을 태자에 책봉하고, 9월에는

자신의 셋째 딸 지소부인(智炤夫人)을 김유신에게 시집보낸다. 유신의 나이 60세였다. 매제에 이어 공들인 조카가 태자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왕과 처남 매제 간이 아니라 장인 사위 간이 되었다. 물론 지소부인은 문희와의 사이에 낳은 딸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 일련의 일들은 김유신이 살아생전 누릴 수 있는 영화의 극치를 보여준다.”<sup>24)</sup>

두 작품에 등장하는 신라의 여인들은 남성에게 종속되기보다는 상당히 주체적인 입장을 보인다. 가장 도전적인 의지를 발휘하는 인물은 역시 <꿈 속의 꿈>에서의 ‘문희’이다. 문희는 언니 보희의 심상찮은 꿈을 사들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나간다. 문희는 김춘추의 옷을 꿰매주라는 오빠의 지시가 어떤 계획을 담고 있는지 단박에 알아챘고, 곧바로 김춘추와 몸을 섞어 혼전 임신에 이른다. 배가 불러오는 누이를 짐짓 화형 시킬 듯이 꾸미는 김유신의 ‘연극’ 속에서 문희는 목숨을 걸고 최고 권력에의 도전장을 던진다. “상대적으로 위세가 약하였던 김유신은 그러한 사실을 널리 알려 혼인을 기정사실로 만들고자 하였다. 선덕여왕 역시 김유신의 여동생이 아버지가 없는 자식을 가졌다는 말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자신의 측근들을 추궁하였던 이유가 있었다. 김유신의 세가 약하다고는 하지만, 감히 왕족의 여동생과 정을 통할 수 있는 사람은 왕의 측근들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sup>25)</sup>

문희: 나 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아내 문명왕후는 이른다. 나 상대등 김유신의 동생 문희는 이른다. 나 서현 각한의 딸 아지는 이른다. 내 딸 지조는 외삼촌 유신에게 시집 가 원술을 낳았다. 내 오라비 김유신은 죽어서 신라의 호국신 흥무대왕이 되었다. 내 맏아들 법민은 후에 문무왕이 되었고, 여러 아들 가운데 문왕은 이찬으로 노차는 해찬으로, 인태는 각찬으로, 지경과 개원은 각각 이찬이 되었다.(자랑스레, 흐뭇하여 웃는다) (15쪽)

24) 위의 책, 175쪽.

25) 김문태, 『현대인의 삶이 투영된 삼국유사 인문학 즐기기』, 페르소나, 2017, 121-122쪽.

문희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김유신에 의한 두 번의 연극, 즉 김춘추의 옷고름 꿰매주기와 문희의 화형식이 ‘기획’되며 문희는 그 짜여진 각본 속에서 훌륭한 ‘배우’의 역할을 수행하고 권력을 쟁취한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각본이란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상당한 모험과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문희는 『삼국유사』를 통틀어 가장 친취적이고 용감한 여성 중 하나이며 장성희는 그러한 문희의 캐릭터를 더욱 극대화시켜 놓았다. 심지어 문희는 왕자 법민이 당나라에 볼모로 갈 위기에 처하자 보희에게 아들 대신 당나라로 가달라고 간청한다. 유신의 부탁으로 첩자의 임무까지 수행해야 할 보희에게 문희는 독약을 쥐어 보내는 치밀함도 잊지 않는다.

장성희는 얼떨결에 길몽을 동생에게 팔아버린 보희마저도 나약한 여성으로 그리지 않았다. 작가는 보희와 춘추를 원래 연인관계로 설정하고, 춘추가 진골 신분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여인과 혼인해버리자 보희가 소위 ‘첩’의 자리는 마다하는 것으로 그려놓았다. 보희는 “같은 꿈을 꾸는 게 사랑인 거야. 함께 꿈을 꺾야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야”라며 “난 큰 사랑을 원해, 서로를 공경하는 사랑”을 갈망한다. 보희는 권력보다는 진정한 사랑을 원했고, 유신에게 “전 꼭두각시 노릇은 그만두겠습니다. 제 꿈은 제가 꾸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주장한다. 보희는 왕자 법민을 데리고 일반 백성들이 겪는 ‘부역의 괴로움과 안일함, 세금의 가벼움과 무거움, 그리고 관리들의 청렴과 부패’를 살피는 역할도 수행한다. 권력을 향한 문희의 질주를 준엄하게 꾸짖기도 한다.

보희: 넌 국모로써 뭘 하고 있는 게냐. 겨우 이거냐. 딸은 성골들에게 주어 품계를 굳히고, 정실부인의 소생 고타소와 사위 품석은 국경으로 보내 죽여? 이번엔 막내 문영이를 당태종의 머리맡이나 지키는 숙위로 내준다고? (43쪽)

사실, 김춘추가 문희 이전에 다른 여인과 혼인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김춘추의 이력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희가 그에게 처음 여자는 아닌 것 같다. 선덕여왕 11년(642년) 대야성(大耶城)의 도독 품석(品釋)이 백제와의 싸움에서 죽었다. 그의 아내 또한 함께 죽었는데, 이 아내는 바로 김춘추의 딸이며, 춘추가 이에 백제를 집어 삼켜 원한을 갚겠다고 맹서하는 말이 『삼국사기』에 나온다. 이 때 김춘추의 나이는 40세. 그러면 품석의 아내는 춘추가 문희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법민이 626년생인데, 문희에게서 딸을 보았다 해도 그보다 뒤일 것이고, 그렇다면 이 딸이 죽은 나이는 많아야 15세다. 도독의 아내치고 너무 어리다.

일연도 ‘태종 춘추공’조에서 “태자와 법민 각각 · 인문 각각 · 문왕(文王) 각각 · 노처(老且) 각각 · 지경(智鏡) 각각 · 개원(愷元)을 모두 문희가 낳았다. (중략) 서자는 개지문(皆知文) 급간 · 차득령(車得令) 공 · 마득(馬得) 아간과 딸까지 다섯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문희가 딸을 낳았다는 말도 없지만, 그런데도 도독의 아내가 된 장성한 딸이 있으니 아마 법민 이전에 다른 여자에게서 낳은 자식으로 보인다. 그 여자가 춘추의 첫 부인일 것이다.<sup>26)</sup>

즉 <꿈 속의 꿈>에서 김춘추의 첫 부인을 진골출신 ‘보량’<sup>27)</sup>으로 설정한 것은 문희와 보희의 각기 다른 선택을 더 두드러지게 하려는 작가의 계산이라 할 수 있다. 유신은 보희에게 “김춘추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어. 보량은 몸이 허약해. 딸 고타소를 낳고 시름시름 병석에 누워있지. 때를 기다려라”(21쪽)고 충고한다. 즉 춘추에게 아들이 없다는 점, 보량의 몸

26) 고운기, 앞의 책, 175-176쪽.

27) 『화랑세기(花郎世記)』에 의하면 태종무열왕의 첫 번째 정궁부인은 보라궁주 설씨로 기록되어 있다. 보라궁주는 미실궁주의 손녀이자, 신라 16대 풍월주 보종전군(寶宗)의 딸로, 둘째 아이를 낳은 뒤 산후병으로 요절했다고 전해진다. 보량궁주와 혼돈되기도 하나, 보량궁주와 보라궁주는 자매지간으로 보량궁주는 신라 30대 문무왕 10년(670년) 남편 김양도가 당나라에서 옥사하자 자결하였다 전해진다. 한편 『화랑세기』는 학계에서 위서 논란이 있는 사서로, 보라궁주가 실존인물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Wikipedia 참조.

이 약하다는 점을 통해 보희 대신 문희가 김춘추와 쉽게 교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

보희는 <꿈 속의 꿈>에서 매우 주체적인 여인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보희는 조카 법민 대신 당나라로 가서 조국 신라를 위해 첩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 일이 탄로 나자 신라를 떠날 때 문희가 쥐여주었던 극약으로 자결한다. 『삼국유사』에서 보희는 동생 문희에게 꿈을 판 이후 종적이 묘연하지만 장성희에 의해 신분과 권력을 초월하여 새로운 꿈을 꾸었던 독립적인 여인으로 거듭났다. 실제 역사에서는 법민이 “줄곧 당나라에 머물며 외교적인 업무에 종사하는데,<sup>28)</sup> 이는 국내에서 당할 정치적 견제를 피하고, 당나라 조정과의 친분을 쌓아 왕으로 등극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김춘추나 김유신의 뜻도 들어 있지 않았을까 한다.”<sup>29)</sup>

두 작품에서 ‘천관녀’는 다소 다른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 “천관녀가 처음 등장한 『파환집』에는 김유신이 만난 여인에 대하여 기생이라고만 하고 있으며 다른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부터 창녀라 부르기도 하고, 이후에는 좀 더 노골적으로 음방(淫房)이라 표현되어 있다. 천관녀의 성격 자체가 점점 남자를 유혹하는 인물로 바뀌어 가는 것이다.”<sup>30)</sup> <꿈 속의 꿈>에서 ‘천관녀’는 잠시 등장하지만 젊은 날의 유신에게 가야의 유민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함께 살자고 설득하는 진취적인 여인상으로 등장한다. 이에 비해 <천마도>에서 아실에게 빙의하여 나타나는 천관녀는 팜프파탈적 면모를 보인다. 천관녀는 비록 오래전에 죽었으나 김유신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으며, 아들 원술에게가

28) 법민이 당나라에 들어간 해는 650년, 아직 아버지 김춘추가 왕위에 오르기도 전이었다. 그로부터 4년 후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고, 본격적인 통일 전쟁이 시작되는 660년, 그러니까 당나라에 머문 지 11년째 되던 해, 백제 원정에 나선 소정방(蘇定方)의 군대를 따라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해 아버지가 죽고 법민은 이듬해 왕위에 오른다. 고운기, 앞의 책, 179쪽.

29) 위의 책, 178쪽.

30) 이기대, 『김유신 관련 여성들의 문학적 형상과 후대적 변화』, 『어문론집』 62, 중앙어문학회, 2015, 340쪽.

지 아실의 몸을 빌려 치명적인 유혹으로 다가간다. 그러나 그 유혹은 단순히 여성적인 매력으로서의 유혹에 그치지 않는다. 김유신과 원술에게 있어 천관녀는 도저히 배어낼 수 없는 그리움의 근원, 곧 가야의 뿌리를 상징한다.

## 5. 결론

홍원기는 김유신의 욕망이 근본적으로 왕권을 향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가야국을 복원하여 가야의 왕이 되고 싶었지만, 신라의 영웅으로 입신하기를 바라는 어머니에 의해 그는 스스로 왕이 되는 대신 매체를 왕으로 만드는 킹메이커가 되어 왕도 부럽지 않은 최고 권력자의 지위를 오래도록 누린다. 김유신인 최고 권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통일’ 이 데올로기의 확장은 필수적이다. 막강한 군사권력의 최고봉에 있는 김유신은 통일의 위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계속 최고권력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천마도>에서 김유신은 통일 이데올로기를 부여잡은 대신 천관녀의 사랑을 잃었고, 아들 원술은 아실의 사랑을 잃었다. 또한 김유신은 원술과 부자지간의 인연을 끊는다. 김유신은 통일을 이루었으나 개인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었다.

장성희의 <꿈 속의 꿈>은 『삼국유사』 ‘기이편’에 등장하는 보희의 꿈을 모티브로 하여 주요 등장인물들의 엇갈리는 꿈들을 정교하게 교직한다. 보희의 꿈을 사는 문희를 비롯하여 주요 인물들의 본래 꿈은 권력에의 꿈에 그 자리를 선뜻 내어준다. 김유신이 천관녀를 배반하는 것은 심지어 가야국의 재건에 대한 꿈을 접는 것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다. 화랑 미곤은 문희를 꿈꾸었으나 문희는 미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왕후가 되기 위해 오빠의 계략에 기꺼이 동참한다. 김춘추 역시 원래 보희를 사모하였으나 본처가 이미 있는 마당에 김유신의 세력을 얻고자

문희와 야합한다. 보희는 남녀 간에 서로 공경하는 큰 사랑을 꿈꾸었으나 김춘추를 동생에게 빼앗긴 후 평생 다른 큰 사랑을 만나지 못한다. 그들은 말년에 한결같이 거짓 꿈을 꾸느라 진짜 꿈을 잃어버렸노라고 한탄한다.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김유신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이다. 김유신은 몰락한 가야 왕족과 결혼한 어머니가 다시 최고 권력에 다가서려는 욕망을 대신 실현하는 자이다. “왜 남자는 어머니의 팔루스가 되고자 하는가? 어머니의 거세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중략) 아이는 결여 없는 어머니, 즉 팔루스를 가진 어머니라는 환상을 발전시키고 이 어머니와 자신을 동일화하며 자신을 어머니가 가지고 있어야 할 팔루스로 만든다.”<sup>31)</sup> 김유신은 어머니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동일화하면서 천관녀를 배어버리고, 누이들을 욕망의 사다리로 이용한다.

김유신이 어머니의 욕망에 지배되는 인물로 그려진 데 비해 두 작품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상당히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상으로 그려졌다. <꿈 속의 꿈>에서 문희는 비록 오빠 김유신의 계략대로 움직이기는 하지만 언니 보희로부터 적극적으로 꿈을 사들이면서 왕후의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 저돌적으로 나아간다. 보희는 춘추의 첩이 되는 대신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조카 법민을 성군으로 교육하는 일에 힘쓰며 나중에는 조국을 위해 당나라로 가서 첩자의 임무까지 수행한다. <천마도>에서 천관녀는 비록 죽었으나 무녀 아실의 몸을 빌려 김유신의 평생을 지배하는 ‘가야의 꿈’으로 상징된다. 이처럼 두 작품은 김유신과 김춘추라는 남성 위인 중심의 설화로부터 여성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해석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꿈속의 꿈>은 보희와 문희를 매우 개성적인 주인공 캐릭터로 형상화하면서 유신과 춘추를 배경적 인물로 도치시켰다.

<천마도>와 <꿈 속의 꿈>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서술된 역사

31) 홍준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남자의 성, 여자의 성』, 아난게, 2005, 293쪽.

적 사실과 설화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작가들의 창조적인 상상력에 의해 각기 매우 독특한 작품으로 형상화되었다. 두 작품은 주요 인물과 역사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어 서로 닮은 듯하지만 판이하게 다르다. 같은 역사서와 설화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작가의 풍부한 해석에 의해 독창적인 내러티브의 창조가 가능함을 보여준 훌륭한 예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차 자료

- 김명화 외, 『삼성문예상 희곡문학상 수상작가선』, 문학사상사, 1997.  
장성희, 『꿈 속의 꿈』, 애플리움, 2009.  
홍원기, <천마도>, 초연대본, 1998.

### 2차 자료

- 고운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삼국유사』, 현암사, 2013.  
김문태, 『현대인의 삶이 투영된 삼국유사 인문학 즐기기』, 페르소나, 2017.  
김부식, 『삼국사기 II』(13쇄), 이강래 옮김, 한길사, 2016.  
이기대, 『김유신 관련 여성들의 문학적 형상과 후대적 변화』, 『어문론집』 62, 중앙어문학회, 2015, 321-348쪽.  
일연, 『삼국유사』, 이가원·허경진 옮김, 한길사, 2006.  
일연학연구원 편, 『일연과 삼국유사』, 신서원, 2007.  
표정옥, 『삼국유사와 대화적 상상력』, 세종출판사, 2013.  
홍준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남자의 성, 여자의 성』, 아난케, 2005.  
화경고전문학연구회 편, 『삼국유사의 문학적 탐구』, 이회, 2008.

## Abstract

### A Study on the Dramatic Variation of Folktales as Focused on *Heavenly Horse Painting* and *Dream within Dream*

Kim, Mido

Many eccentric folktales about Kim Yu-Sin, a great commander of Silla, are found in *Samguksagi* and *Samgukyusa*. This thesis aims to study how to reinterpret and recontextualize the folktales related to Kim Yu-Sin as focusing on two plays adapted from it: Hong Won Ki's *Heavenly Horse Painting* and Chang Sung-Hee's *Dream within Dream*. Their stage were also acclaimed as distinguished performance.

In *Heavenly Horse Painting*, Kim Yu-Sin feels attractive to Heavenly Woman because they both are refugee of Gaya, the collapsed nation. However Kim's mother, who has married a royal family of Gaya as a Jingol caste of Silla, tries to eliminate all the Gayan hovering around him in order to achieve his political power. He does a sort of symbolic action to show that he follows her wish: wringing his horse's neck since it runs to visit Heavenly Woman's house by habit.

Hong Won-Ki regards that Kim Yu-Sin's desire ultimately goes to the throne. He actually wishes to be a King of Gaya as the reconstructed country, but he is willing to choose the position of a Kingmaker whom contributes his younger sister's husband to become a King. In doing so, he achieves his mother's wish as a hero of Silla and has such a strong political authority for his lifetime.

As being based on Bohee's dream, which is narrated in Giyi chapter of *Samgukyusa*, *Dream within Dream* exquisitely intervenes the mingled dreams of main characters. Their dreams are easily replaced to the desire toward the power, from Munhee who buys Bohee's dream to the others. All characters Yu-Sin,

Choon-choo, Bohee and Munhee -last two are Yu-Sin's sisters- crave for the power. Along the way, they end up scratching their pure dreams because of the social caste. Kim Yu-Sin is born to be limited as the refugee of Gaya, and his sisters are for the same as well. Kim Choon-choo is also born to be limited to become a king due to his Jingol status. So they have been in collusion when the occasion arose and the needs meet. As of the old, they lament their misfortune saying that they lost their real pure dream by following the false dream.

It is seen that both plays reveal the Oedipus' complex of Kim Yu-Sin. He is a kind of deputy of his mother to achieve her desire: acquiring the political power again as a married woman of the Gayan. Comparing to Kim Yu-Sin described as being controlled by his mother, his sisters are very independent characters. Although Munhee obeys a command of the brother Yu-Sin, she eagers to rush into the queen as she even buys the dream from older sister Bohee in *Dream within Dream*. Bohee also chooses the autonomous life, too. Instead of becoming concubine of Choon-choo, she sets herself up as an instructor of her nephew Bup-Min in order to raise as a good king. Moreover, she is willing to become a spy to Tang dynasty for the country's sake. Also in *Heavenly Horse Painting*, Heavenly Woman takes shaman Asil's body after her death and dominates Kim Yu-Sin by delivering the dream of Gaya for his lifetime.

Not only both plays are based on the historical facts from *Samguksagi* and *Samgukyusa*, but also they show off very creative imagination. In the context that they adapt similar historical background and share same characters, both look so alike, yet so different. They are the good examples to show the theatrical possibility to adapt the folktale: even though it is based on the same story, creative narratives stem from playwright's full of imagination.

Key words: *Heavenly Horse Painting*, *Dream within Dream*, *Samguksagi*, *Samgukyusa*,  
Folktale